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2분기 미 GDP 3%로 상향 조정...탄력적인 소비 지출 덕분
- Bloomberg: 지역별 연준, “미 일자리 시장 리스크가 시작된다”
- Bloomberg: 아틀란타 연준 총재, “금리 인하 때가 된 듯 하나 지표 더 필요”

#### [미국 금융]

- Bloomberg: 양호한 미 GDP 발표 직후 미 국채 금리 상승세
- Bloomberg: 미 주식, 견조한 GDP 소식에 상승세
- Bloomberg: 엔비디아 실망스런 실적 예상으로 하락... 블랙웰 칩도 걸림돌

#### [주택]

- Bloomberg: 계약 체결 중인 미 주택 판매 최저치로 하락

#### [자동차]

- WSJ: 중국 전기차 주식들 하락세... 수요 감소 우려로

#### [에너지]

- WSJ: 미국 원유 재고, 예상보다 감소량 적어

#### [원자재]

- Bloomberg: 알루미늄, 비금속 가격 하락 주도... 수요 회복 우려로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메이시스, 실적 회복세
- Bloomberg: Best Buy 상승세, 신기술에 소비자들 이끌려
- Bloomberg: Dollar General 하락세... 핵심 고객도 예산 부담
- Bloomberg: 노키아 모바일 네트워크, 삼성이 관심 보여
- CNNBusiness: Yelp, 검색 엔진 독점 주장하며 구글에 소송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Economy Expands at Revised 3% Rate on Resilient Consu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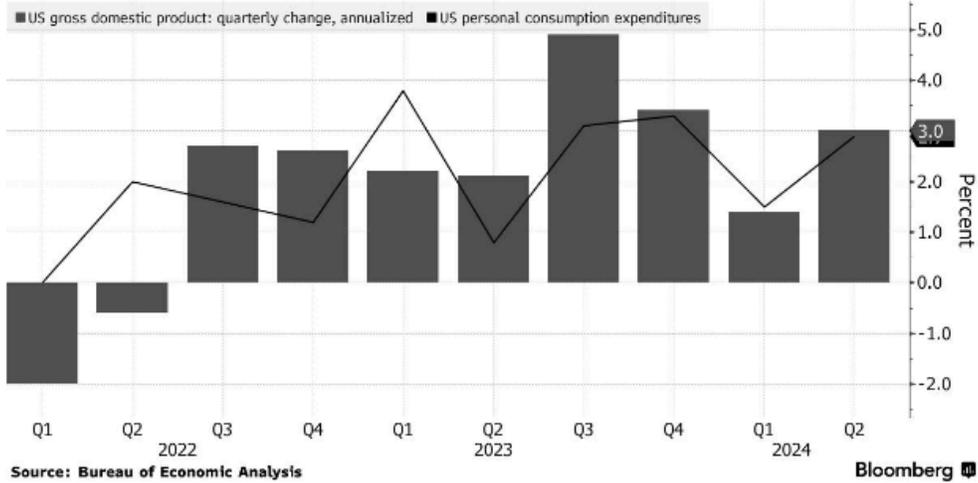
#### **2분기 미 GDP 3%로 상향 조정...탄력적인 소비 지출 덕분**

- 2분기 미국 경제가 당초 예측된 수치보다 약간 더 강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소비 지출이 당초보다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 오늘 목요일 연방경제분석국에 따르면 2분기 미국 GDP는 당초 추정치 2.8%보다 약간 높은 연이율 3%로 상승했다. 미 경제의 핵심 엔진인 개

인 지출이 당초 예측한 2.3% 증가세가 2.9%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 한편 오늘 발표된 미 신규실업 청구 건수는 지난주와 별 변동이 없는 23만 1천건을 기록했다.

**US GDP Revised Up on Consumer**  
**Higher spending offset revisions in other categories**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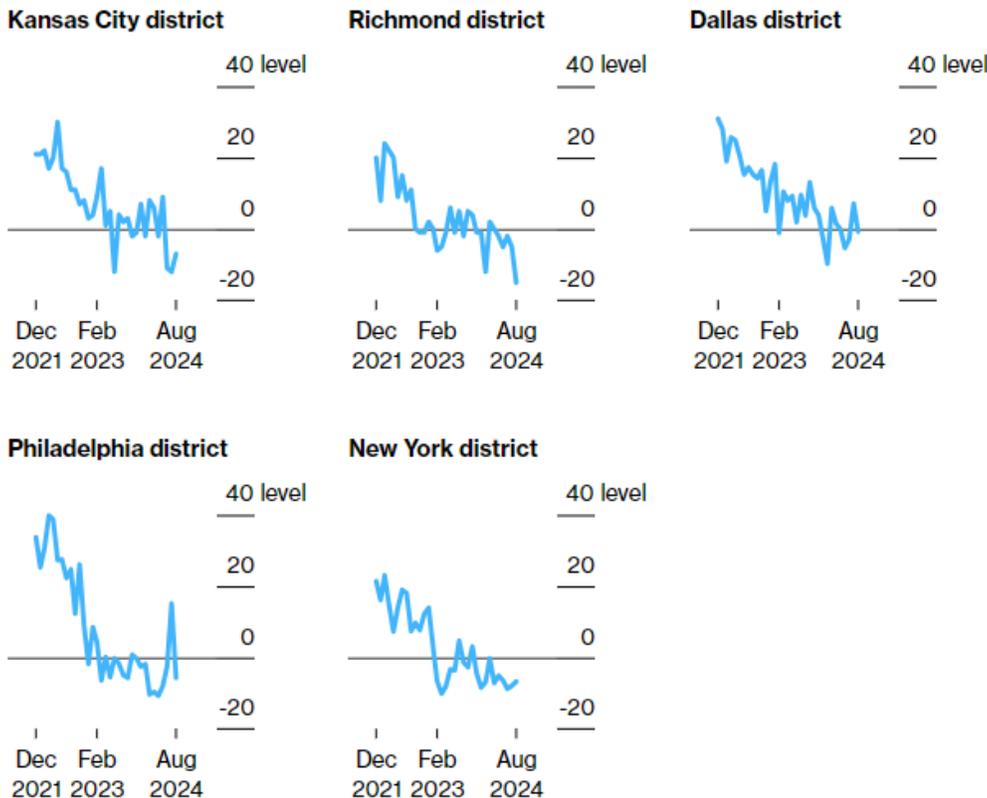
**Bloomberg: Risks to US Job Market Start to Emerge in Regional Fed Surveys**

지역별 연준, “미 일자리 시장 리스크가 시작된다”

- 최근 지역별로 미 연준의 고용 지표들은 미 일자리 시장이 리스크를 보이고 있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5개의 지역 연준의 8월 제조업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 부분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다. 이들 지역 연준은 연준의 파월 의장이 정책 결정의 중심으로 보고 있는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 한 예로 캔자스 연준의 제조업 분야의 경우 고용이 지난 2020년 중순 이래 3개월 연속 축소되고 있고 리치몬드 연준의 수치는 제조업 고용이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Downshift in Job Market on Display in Fed Surveys

Manufacturing employment gauges firmly in contraction territory in August



Source: Federal Reserve regional banks  
Note: Readings below zero indicate shrinking employment

Bloomberg 기사

### Bloomberg: Fed’s Bostic Wants More Data to Confirm Need to Cut Next Month

아틀란타 연준 총재, “금리 인하 때가 된 듯 하지만 지표 더 필요”

- 아틀란타 연준 총재인 Raphael Bostic은 “금리 인하의 때가 된 듯 하나 다음달 인하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경제 지표를 여전히 찾고 있다”고 말했다.
- 물론 그는 인플레가 본인의 예상보다 더 빨리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이 더 빨리 상승한 후 금리 인하에 대한 본인의 타임라인이 빨라졌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 신중한 이유와 관련해 그는 금리를 인하한 후에 다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즉, 실수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Bloomberg: Treasury Yields Rise After Resilient Data Suggests Measured Fed****양호한 미 GDP 발표 직후 미 국채 금리 상승세**

- 미 국채 금리가 미 GDP의 양호한 성장 발표로 상승세를 보였다. 양호한 성장률이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예상보다 투자자들이 낮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는 전체적으로 2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시장은 오늘 경제 지표 발표 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몇 포인트 줄였다.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9월에 31 베이시스 포인트, 즉 0.25%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올해 트레이더들은 3차례 남아있는 연준 회의에서 한 번의 큰 인하 가능성을 내다 보면서 총 1% 포인트 아래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tock Traders Look Past Nvidia After Solid US GDP: Markets Wrap****미 주식, 견조한 GDP 소식에 상승세**

- 연준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견조한 GDP 성장 소식에 주식은 상승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 중이다.
- 주식은 상승 중인데 S&P500지수는 8월의 상승 폭을 확대했으며 나스닥 100은 1% 상승했다.
- 곧 발표되는 핵심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도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부 전문가들은 오늘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간 하락한 데다 GDP도 약간 상승된 상황이라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이라 연준이 다음달에 금리 인하를 재검토 할 일이 없다고 예상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vidia Tumbles After Disappointing Forecast, Blackwell Chip Snags****엔비디아 실망스런 실적 예상으로 하락... 블랙웰 칩도 걸림돌**

- 엔비디아는 어제 수요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Blackwell 칩 생산 연기 소식을 전했다.
-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에서 분석가들의 여러 가지 지표 예측에 부합했거나 상회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폭발적인 실적에 점점 익숙한 상황에서 이번 실적은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더욱이 엔비디아의 다음번 빅 캐시카우로 여겨지는 제품인 새로운 Blackwell 프로세서 라인업은 예상보다 생산이 더디리라는 것. 이 제품은 다음 세대의 이 회사 주요 AI 프로세서이다. 주식은 어제 실적 발표 후 큰 폭 하락에 이어 오늘 목요일 현재 3.5%대의 추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Bloomberg 기사

#### [주택]

#### **Bloomberg: US Pending Home Sales Gauge Drops to Lowest on Record** 계약 체결 중인 미 주택 판매 최저치로 하락

- 7월 기존 주택의 체결 중인 건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싼 주택 가격과 높은 금리가 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오늘 목요일 전국부동산협회의 주택 계약 서명 지수가 지난달에 5.5% 하락한 70.2를 기록했다. 이는 집계가 시작한 지난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 일자리 성장과 주택 매물이 있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 여력이 힘들다는 상황인 데다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Bloomberg 기사

#### [자동차]

#### **WSJ: Chinese EV Stocks Tumble on Worries About Weak Auto Demand** 중국 전기차 주식들 하락세... 수요 감소 우려로

- 홍콩에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주식들이 크게 하락했다. 경쟁이 강화되고 중국 내 관련 소비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4분기 자동차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 Li Auto가 손실을 주도했는데 홍콩 주식시장에서 9.1% 감소했으며 BYD는 어제 수요일 실적 발표 직후에 1.6%, 그리고 XPeng은 5.5%, NIO는 5.1% 각각 떨어졌다.

- 분석가들은 중국의 4분기 전기차 판매량도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말한다. CPCA 데이터에 따르면 2033년 마지막 분기 소매 차량 판매량은 646만대였다.

WSJ 기사

## [에너지]

**WSJ: U.S. Crude Oil Stocks Fall Less Than Expected****미국 원유 재고, 예상보다 감소량 적어**

-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에 따르면 정유업체의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 상업용 원유 재고는 지난주 5년 평균보다 약 4% 낮은 4억2천520만 배럴을 기록했다.
- 미국 에너지 정보국은 미국 원유 생산량 추정치를 10만 배럴 줄인 하루 1,330만 배럴로, 원유 수입은 9만2천 배럴 줄인 하루 660만 배럴, 수출은 37만4천 배럴 줄인 하루 370만 배럴로 낮췄다.
- 또한 휘발유 비축량도 220만 배럴 줄인 2억1천840만 배럴로, 5년 평균보다 약 3% 낮다고 밝혔다. 휘발유 수요는 11만5천 배럴 늘어난 하루 930만 배럴을 기록했다. 증류유 재고는 27만5천 배럴 늘어난 1억2천310만 배럴로, 5년 평균보다 10% 낮은 기록이다.

WSJ 기사

## [자원]

**Bloomberg: Aluminum Leads Base Metals Down on Dim Supply and Demand Balance****알루미늄, 비금속 가격 하락 주도... 수요 회복 우려로**

- 알루미늄이 중국 수요 약세와 충분한 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2개월 내 가장 많이 하락했다. 다른 산업 금속도 가격이 하락했다
- 화요일 알루미늄 가격은 3% 이상 하락했다. 런던금속거래소의 3개월 계약 대비 현물 가격 할인 폭은 톤당 29달러까지 늘어 현재 글로벌 공급량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광저우에선 알루미늄 공급은 충분한데, 중국 수요 회복은 제한적이므로 금속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 알루미늄은 톤당 1.2% 하락한 \$2,467.50 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Macy's Doesn't Need a Miracle to Lift Its Stock 메이시스, 실적 회복세

- Macy's는 다른 백화점처럼 T.J. Maxx, Ross Store 같은 할인 매장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실적이 안 좋은 매장 문을 닫으면서 매출이 약 15% 감소했다.
- Macy's는 올해 초 Tony spring이 인수하면서 변신을 시작했다. 실적이 안 좋은 매장 문을 닫고, 럭셔리 중심의 Bloomingdale's와 Bluemercury 매장을 늘렸다. 새로운 CEO는 소비자 선호도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변화를 시도한 첫 분기에서 May's는 리뉴얼 매장의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4% 증가했다고 밝혔다.
- 또한 현재 Macy's 주가는 저렴한 편이다. 오랜 시간 하락세였기 때문이다. Nordstrom과 Kohl's 같은 동종업계보다 약 50% 낮다.

WSJ 기사

### Bloomberg: Best Buy Sees Higher Profit as Consumers Enticed by New Tech Best Buy 상승세, 신기술에 소비자들 이끌려

- Best Buy는 예상 주당 순이익을 이전 6.20달러에서 6.3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인공지능 같은 혁신 기술과 결합한 신제품의 구매가 늘어나면서 회사의 노력이 성과를 보였다.
- Best Buy 경영진은 소비자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CEO인 Corie Barry는 업계가 점점 안정화되고 있으며, 올해 컴퓨팅 부문 매출이 계속 성장할 것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 최근 소매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적절한 가격의 신제품을 구매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소비 습관은 생필품이나 저가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도움이 되고, 고가품 판매 업체엔 타격을 주고 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Dollar General Plunges as Core Customers Feel Budget Crunch Dollar General 하락세... 핵심 고객도 예산 부담

- Dollar General이 목요일 올해 매출 전망이 1%에서 1.6%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에서 2.7% 증가할 것이란 이전 발표보다 감소한 것이다. 2024년 수익 전망도 낮췄다.

- 최근 소비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필수품과 저렴한 제품을 위주로 구매한다. 핵심 고객인 저소득층은 특히 지출을 줄이고 있다.
-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계절상품, 가정용품, 의류 판매가 감소했으며, 쇼핑객 1회당 지출액도 줄었다.
- 이 회사는 매장이 2만개가 넘는데 실적 개선에 애를 쓰고 있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Nokia Mobile Networks Assets Said to Draw Samsung Interest**

### **노키아 모바일 네트워크, 삼성이 관심 보여**

- 노키아 오이지(Nokia Oyj's)의 모바일 네트워크 자산은 인수 후보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은 휴대폰과 통신 인프라를 연결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노키아의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부는 전 세계 무선 통신 사업자에게 기지국, 무선 기술, 서버를 공급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부문이 작년 노키아 전체 매출의 약 44%를 차지했다.
- 서구 지역 정부는 노키아가 사라지면 화웨이의 독점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 화웨이, Ericsson AB와 같은 회사들이 노키아 인수를 위해 경쟁 중이다.

### Bloomberg 기사

## **CNNBusiness: Yelp sues Google, alleging a search engine monopoly that promotes its own reviews**

### **Yelp, 검색 엔진 독점 주장하며 구글에 소송**

- Yelp는 수요일 구글이 지역 검색 및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Yelp는 사용자가 지역 비즈니스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검색 엔진 사업이다. 구글 검색 사업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연방 판사의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Yelp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길 찾기, 영업시간, 리뷰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므로 고객들이 외부 소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Yelp, 여행 제공업체 Expedia, 부동산 사이트 Zillow와 같은 사이트는 공평하게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구글은 “Yelp의 주장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FTC와 법무부(DOJ) 사건의 판사가 기각한 바 있다. 구글은 Yelp의 근거 없는 주장을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Business 기사

## 골드만 "증시 급락 후 급등 회복이 오히려 문제" 경고 연준 금리인하 앞두고 미 국채 ETF에 '뭉치돈'

미국 주요 투자은행(IB)에서 글로벌 증시가 이달 초 급락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골드만삭스의 자산 배분 책임자 크리스찬 물러-글리스만은 28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이달 초 주식 폭락을 "경고사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락 직전 한두 달간 (투자자들의) 포지셔닝(투자전략)과 심리가 매우 낙관적이었지만 동시에 미국과 유럽, 중국의 거시 모멘텀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걱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려되는 것은 매우 빠르게 (폭락)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라며 "슬프게도 우리가 (거시 모멘텀이 약해진) 한 달 전에 직면했던 것과 거의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